

보 도 설 명 자 료

('23. 3. 2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원전 출력 제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은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3.29일 경향신문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 ‘원전 확대’
필요한가?」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최근 전력수요 감소 및 태양광발전 증가로 원전 감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원전 출력 감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의 경제성이 퇴색할 가능성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원전 출력 제어는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봄철
경부하기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 여부를 검토
 - 원전 출력 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전 설비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
 - 연중 몇차례 되지 않는 출력제한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분은 연간
원전 발전량에 비해 매우 작으며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 * '22년 원전 발전량 176,054GWh 대비 '23.3.19일 감발량(약 11GWh)은 약 0.006%
- 원전은 특수한 경부하기 외에는 기상(氣象)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임
 - 우리나라 연간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원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며 각 계절별 전력수급 여건이 매우 상이한
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발전원 간 균형과 조화가 중요

- 지난 겨울에는 폭설로 태양광발전이 저조한 가운데 역대 최고 전력
수요가 발생했으나 원전 등 전통 전원 중심으로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 '22.12.23일 : 역대 최대전력수요 94.5GW 기록, 태양광발전 이용률 15%

- 정부는 전력수급 여건 변화 및 급변 봄철 환경을 감안하여 '봄철
(4~5월) 전력수급대책'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봄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임

※ 문의 :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044-203-3880) 조민웅 사무관(3886)